

**아름다운 발 (로마서 10:1-15)**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전도자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 바란다.

지난 주는 엘리야의 노력이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봤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심부름을 했다는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당연히 엘리야는 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언약을 회복하고 사단의 종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을 하였다. 그 이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비를 내려 주셨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기도도 해야 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할 때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시고 나서 한 말씀이다.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로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 사건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되어졌다 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도 외에는 안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기도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다. 말씀이 세상에 임해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기도라는 것이다. 그래야 열왕기상 18장과 말씀이 통한다. 몇 주전에는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지역의 늪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져 죽음을 당한 것을 보았다. 너무 마음이 아픈 죽음이였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자는 시체를 먹지 않고 옆에 나귀가 있는데도 그냥 있었다. 그러면 왜 죽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였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다. 너무나 말씀이 죽어 있는 시대였다. 아무도 말씀에 신경쓰지 않고 말씀과 반대로 가야 하는 시대였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이다. 무조건 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다. 스테반과 같은 죽음이었다. 지난주 갈멜산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였다. 너무 이상승배가 심했다. 아합과 이세벨은 대표적인 이상승배자중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으니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헤갈릴정도였다.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종을 죽이라는 것이다. 850명 죽였다. 이렇게 싹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는 것이다.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중에 복음이 성취되었다. 사단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말씀은 성취되고, 그것이 응답으로 온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언약이 되기 바란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이다.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나로 인하여 지옥을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해라. 심각한 이야기인데 예사로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심각하게 받는 사람은 정복하게 되어 있다.

**1. 아름다운 발**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말로 시작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흐름으로 보면 구원 없다는 것이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한다고 하였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다. 거기 내가 있어 봤다는 것이다. 내가 체험하고 말하는데, 이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아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바리새인중에 있었겠는가? 없었다. 그는 율법에 관한한 모든 것을 통틀어 1등이었다. 그 사람이 이야기 했

다.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다르지 않다. 이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할수 가 없다. 항상 이 언약의 피를 중심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해석해야 한다. 안그러면 역효과가 난다.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한 것을 담고 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광범위하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약속의 피제사 안에 약속되어 있다. 이 언약의 피 밖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데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가면 갈수록 죽는다. 마지막에 영원히 죽는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왜 왔는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의 일점 일획도 빠짐없이 성취하러 오셨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없어도 된다. 그 정신이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구원 받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앞에서 이야기 한 하나님의 의일 것이다. 자기 안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이뤄야 하는데 자기 의를 이루는 것, 이렇게 안될 수가 없다. 자기 의를 이루지 않을수가 없다 왜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는데, 이것이 교만이 되어버리게 되면 깨닫는 것이지 출발은 자기 의를 행하려는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길이 아니기에 옆으로 가서 교만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까지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되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의 의를 율법 안에도 넣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이다. 뭘 믿는가? 언약의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 그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자기를 의롭게 해야 되는데, 율법의 조항으로 의롭게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이다. 지금도 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결국 안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심하면 대적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다 죄인이다. 죄 해결하고 싶다. 안 죽고 싶다. 그런데 계속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한것에 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죄 안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길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죄에서 못 나온다. 개개인이 다 그럴 것이다. 한가지씩은 특징적인 죄가 있다. 결정적이고 영적인 문제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당하게 되어 있다. 답이 뭐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 언약의 피를 잡아야 뱀의 머리가 깨진다. 그것 되기 전에는 절대 죄에서 못 나온다. 죄는 곧 나의 가장 큰 영적 문제이다. 그것 때문에 항상 걸린다. 뭘라다 말고 뭘라다 말고, 늘 걸리는게 그것이다. 나오는 답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고 영적 전생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가장 역사적으로 뛰어난 예가 바리새인들이다. 자기들은 율법을 오해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는데, 핵심 내용은 약속의 피제사이다. 아담이 언약의 피 때문에 살았다. 창세기 3장 21절의 근본은 3장 15절이다. 아벨의 제사는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려니까, 아브라함은 단으로 승리했다. 약속의 피의 단. 노아는 이 언약의 피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만 구원 받았다. 출애굽때 한 것은 이 피를 바른 것 뿐이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영적 문제인 것이다. 피를 발라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를 받은 자는 구원 받는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 언약의 피를 잡은자는 구원 받는다. 그것이 계시록이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인하여 살것이라고 모세가 말했다. 이 약속의 피제사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런데 그 앞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고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말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뜻이 통하지 않아서. 내가 처음 교사로 임명되었을때에 칼빈주석을 샀다. 그런데 이게 안통하니 이 주석을 꺼내봤지만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 년 걸렸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이해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영어로 읽어보면 조금 쉽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다 같다. 율법이든, 그 이후의 성경이든 말하는 의는 곧 구원이고 죄사함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희생제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니가 하늘이 어디에 있냐? 구원이 어디 있냐 할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니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 죽으시면 구원 없다. 그런데 죽지 말라고 끌어 내리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다. 7절은 같은 뜻으로 지옥을 가지고 말했다. 니가 무조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 올리는 거라는 것이다. 죽으셔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지식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꼭 말씀하셨다. 9절,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할 십자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이제 그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순간 구원 끝났다. 의인은 죄사함 받은 것이다. 죄사함만 받고 구원은 안되고 그런 것은 없다. 죄사함을 받으면 즉시 구원이다. 그리고 그 때 구원은 영원하고 아무도 손 못 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창세전의 결정이고 태중의 결정이다. 그러면 뒤에는 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은 구원에 필요 없다. 그래서 공짜인 것이다. 무엇을 조금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짜 아니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하였다. 입으로 주님주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아니고 믿음으로 마음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항상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 하나로 끝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가 뭐를 하고, 대가를 가지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창세전, 태중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했다. 그 이후에 믿음을 이야기 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말했다. 이 결론 후에 복음과 믿음, 남은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다. 그래서 14-1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들은 이사야 52:7절에서 온 말씀이다. 산을 넘어가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 뿐이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가기 때문에. 갔다 하면 영원히 죽는 것이다. 죽어지지도 않는다. 많은 산과 바다를 넘어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한다. 구원을 공포하고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 2.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열쇠이다. 이것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열쇠를 주는 것이 전도이다. 여기의 인생 열쇠 여기 있다 하고 주는게 전도이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뜻을 이루면 참 쉽다. 개인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답은 그리스도 하나 뿐이고 완전하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많이 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다. 예배를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자녀는 예배 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

라고 했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다. 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을 주신다. 대표적인 것이 답을 주신다. 그리스도가 답인 것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을 보고 발견이라고 한다. 세상 최고의 발견이다. 아주 근본 발견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눈 뜨는 것이다. 깨달으면 마음에 들어온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이 된다. 그러면 더 깊이 언약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온다. 깊이 고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언약은 영적 작업을 시작한다. 주위의 사단이 무너지고 응답이 나타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이 성도이다. 이렇게 안살면 사단에게 매일 당한다. 성경은 이런 일이 세상 첫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고 중단되고 끝난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과정이었다. 심지어 원죄도 그랬다. 정말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확실한 언약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한가지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것으로 살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결국 안된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론이다. 언약으로 살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한다. 이것이 지속되면 누구든지 정복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석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열쇠 주셨기에 인생 모든 문이 열린다.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마지막에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연다.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열쇠로 살면 닫힌 문도 열린다. 닫힌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끝인줄 알았는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일로 속단하면 다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냥 묵묵히 언약의 피를 내 인생이 바르는게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언약의 피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 날 뱀의 머리는 완전 박살난다. 그날 이후로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광야 40년도 그렇게 하셨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다. 이게 정상이다. 지금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다. 우리가 땅에 췌는가? 그럴 리가 있는가? 땅에서 뭐를 췌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가? 오늘도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가만히 있던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2-3백만명 사람과 짐승이 먹을만큼 물이 나왔다. 아무도 배고파 죽은 사람 없다.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다고 하였다. 옷이 헤어진 적도 없었다고 하였다. 매일 낮에는 어김없이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수 있다.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정복이다. 대부분은 놀려서 산다. 문제를 정복하고 인생을 정복해야 한다. 교회는 전도를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에 놀려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정복해야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해방을 위하여. 이 정복을 위하여. 그러면 믿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신자이다. 마지막에 가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필요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시는 날이 오면 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믿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사라지기 쉽다. 각인이 되고 언약이 되기 바란다. 체질이 되어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버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언약잡고, 지금 성도들이 보통 살아온 인생과는 180도 다른 인생 살기 바란다.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의 기준이다. 주위의 사람들은 오히려 도와줄 사람이니 그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대적인 인생 살 자격이 있다. 이 놀라운 일은 창세전의 계획이었고 이미 태중에서 성취되었다. 이 시대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눈을 크게 뜨고 좁은 마음을 깨고 멀리 바라보기 바란다. 세계복음화에 답나기 바란다. 기도도 커지고 마음도 생각도 커진다. 정복하며 살며 끝까지 가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은 정복의 대상이다 정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